

孫光憲詞에 대한 一考察

金甫暲*

<목 차>

1. 들어가며
2. 孫光憲의 생애
3. 孫光憲詞의 예술 성취
 - 3.1 題材의 다양화
 - 3.2 詞風의 확대
4. 결어: 孫光憲詞의 한계와 의의

1. 들어가며

孫光憲은 晚唐·五代때 荊南에서 활동한 문인으로, 溫庭筠·韋莊으로 대표되는 花間派 사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현재 현존하는 작품 수량만 가지고 보자면, 그의 詞는 後蜀 사람 趙崇祚가 편찬한 《花間集》에 61수가 수록되어 있고¹⁾, 宋代 무명씨가 편찬한 《尊前集》에 23수가 수록되어 있어, 현재 총 84수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화간파 사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다. 그러나 작품 수량의 다과에 상관없이 그의 사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줄곧 溫庭筠이나 韋莊의 사에 대한 그것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화간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溫·韋 두 사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孫光憲의 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²⁾

* 高麗大學校 BK21中日言語文化教育研究團 研究教授

1) 이는 溫庭筠(66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량이다.

2)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서는 申鉉錫의 <孫光憲詞의 特徵 考> 한 편이 孫光憲詞를

그러나 근대 이후 孫光憲詞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어나 그가 만당·오대 詞壇에서 이룩한 성취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의 사를 溫·韋 두 사람의 사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鄭振鐸은 《插圖本中國文學史》에서 “화간파 사인들 가운데 그는 족히 溫庭筠·韋莊과 더불어 같은 수평선상에 있을 수 있었다”³⁾라고 하였고, 詹安泰는 <讀詞偶記>에서 “花間詞파에서 孫孟文(光憲)은 한 사람의 대가로서, 溫·韋와 더불어 鼎足之勢를 이룰 수 있었다. 《花間集》에서 孫孟文의 작품을 특별히 많이 수록한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⁴⁾라고 하였다.

오늘날 여러 孫光憲詞 연구자들은 孫光憲이 사 창작에 있어서 溫庭筠·韋莊을 위시한 여타 화간파 사인과 다른 경지를 개척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楊海明은 《唐宋詞史》에서 孫光憲詞의 제재 내용이 상대적으로 폭이 넓고 풍부하고, 또한 그 경계가 매우 드높았다고 보았다.⁵⁾ 화간파의 艷情 위주의 작품들 사이에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孫光憲詞 위상 제고에 힘쓰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詞史 혹은 문학사 관련 서적들, 혹은 詞選集 등에서 孫光憲詞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여전히 孫詞 연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비록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만당·오대 화간파 詞人에 대한 일반의 평가에서 孫詞의 지위는 여전히 溫庭筠·韋莊과 동일선상에 놓이지 못하고 있고, 같은 시기 혹은 약간 후대의 馮延巳·李煜의 지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孫光憲詞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여전히 中國詞 연구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로서는 유일하다.

3) “在‘花間詞’詞人們裏，他是足以和溫、韋在一條水平線上的。”(鄭振鐸，〈插圖本中國文學史〉，北京：北京出版社，1999，439쪽)

4) “花間詞派，孫孟文是一大家，與溫、韋可鼎足而立，〈花間集〉錄孫作特多，不爲無故。”(詹安泰，〈宋詞散論〉，廣州：廣東人民出版社，1982，122쪽) 詹安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글(같은 쪽)에서, “讀〈花間集〉，學飛卿或失之難；學端己或失之易；惟學孫孟文可無所失”이라고 하면서 孫詞에 典範的 地위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5) 楊海明著，宋龍準·柳種陸共譯，〈唐宋詞史〉，서울：新雅社，1995，190-191쪽.

본고는 이에 지금까지 비교적 덜 주목받았지만, 中國詞의 발전사상 만드신 한 번쯤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孫光憲詞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화간사인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작품을 남겼고, 제재·내용이나 경계 등에 있어서 여타 화간사인들과 다른 경지를 개척했음에도, 왜 그의 사가 과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작품의 인용과 분석을 위한 底本으로는 張璋과 黃畬가 편해낸 《全唐五代詞》⁶⁾를 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 책은 《花間集》과 《尊前集》에 실린 孫光憲詞를 모두 수록하였고⁷⁾, 교감이 잘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작품에 대한 역대의 평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孫光憲詞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⁸⁾

2. 孫光憲의 생애

楊海明은 《唐宋詞史》에서 孫光憲을 두고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일반 花間詞人の 좁은 생활 테두리에서 벗어나 비교적 넓고 막힘이 없는 예술 경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⁹⁾라고 평하였다. 이는 그의 사와 그의 삶이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 바, 孫光憲의 사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¹⁰⁾

6) 張璋·黃畬編, 《全唐五代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7) 이 책 속에 孫光憲의 이름 하에 수록된 작품은 총 85수이다. 이는 편자들이 《花間集》·《尊前集》에 수록된 작품 이외에, 《歷代詩餘》에서 실은 바 있는 <調笑令> 1수를 더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과연 孫光憲의 작품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일단 본고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참고로 林大椿의 《唐五代詞》와 曾昭岷 등의 《全唐五代詞》에서는 이 작품을 수록하지 않았다.

8) 이 밖에도 蕭繼宗이 校釋을 한 《花間集》(臺北: 臺灣學生書局, 1981)도 동시에 참조하였다. 이 책은 花間詞에 대해 音釋·校勘·集評·評價 등의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여, 역시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9) 楊海明, 앞의 책, 191쪽.

10) 孫光憲의 生平은 여러 詞學 논저들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고, 蕭繼宗의 《花間集》에서 인용한 《十國春秋》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므로, 본고에서 이를 중심으로 그 生平을 살폈다.

孫光憲(?-968)은 字가 孟文이고 陵州 貴平(지금의 四川 仁壽 東北)人이다. 집안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했는데, 유독 孫光憲만이 어려서부터 독서와 학문을 좋아하였다. 後唐 시절에는 陵州判官(혹은 陵州刺史)을 지냈는데 명망이 있었다. 天成(926-930) 初 江陵에 은거해 살다가, 武信王(高季興)이 갑자기 荊 땅을 차지하고 사방의 선비를 불러 모을 때, 梁震의 추천을 통해서 掌書記로 들어갔다.

왕이 마침 戰艦을 크게 만들어, 楚나라와 각축을 벌이려 하자, 孫光憲은 “荊南에 亂離가 난 후, 공의 덕에 힘입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士民이 비로소 생기를 떨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초나라와 원수관계를 맺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가 우리의 피폐함을 틈탄다면, 이는 진실로 근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라고 간하였다. 이에 왕은 준비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文獻王(高從誨)이 즉위하고, 때마침 梁震이 물러날 것을 청하자, 정사를 모두 孫光憲에게 맡겼다. 왕은 항상 馬氏¹¹⁾의 호방하고 화려함을 선망하며, 관리들에게 “馬王과 같다면 가히 대장부라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孫光憲이 이르길, “천자제후는 그 禮에 등차가 있는데, 저 젓비린내 나는 녀석은 다만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참람되고 지나친 일만을 일삼으며, 일시의 쾌락만을 취할 따름이니, 그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그런 놈을 흠모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왕은 갑자기 깨닫고 “公의 말이 옳소이다”고 하며 한참 동안 후회하며 감사했다.

孫光憲은 南平을 3世 섬겼는데, 대부분 幕中(병영)에 있었다. 관직은 荊南節度副使, 朝議郎, 檢校秘書少監, 試御史中丞 등을 두루 지냈고, 임금으로부터 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南平의 마지막 왕인) 高繼沖 재위 시절, 宋나라에서는 慕容延釗 등을 사신으로 보내 湖南을 정벌하러 荊(南平)에게 길을 빌리면서, 병력이 성 밖을 지날 것을 약속하였다. 대장 李景威가 高繼沖에게 병력을 배치해 그에 대비할 것을 권하였다. 孫光憲이 그를 꾸짖어 말하길, “너 같은 峽江의 촌뜨기가 어찌 成敗를 알겠는가? 中國은 周世宗(柴榮) 때부터 이미 천하를 통

www.kci.go.kr

11) 五代十國의 하나인 楚나라를 세운 馬殷. 이후 楚나라는 南唐에게 멸망당했다.

일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물며 성스러운 宋나라가 천명을 받들어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일어남에 있어서야! 천자의 군대는 쉽게 막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高繼沖으로 하여금 척후를 없애고, 창고를 봉하여 宋나라의 군대를 기다려 三州의 땅을 모두 바치게 하였다.

宋太祖가 그의 功을 가상히 여겨, 黃州刺史에 제수하였고 하사품을 내리고 관등을 더하여 주었다. 그가 다스린 군에서는 또한 ‘잘 다스린다’는 명성을 들었다. 이후 宋 조정에서 그를 學士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乾德 末年에 죽었다.

孫光憲은 두루 박식하였고 책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수집한 책이 거의 수천 권에 달하였고, 손으로 옮겨 쓰고 교감하는 일은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 自號가 葆光子로서¹²⁾, 저서로는 《荊臺集》·《橘齋集》·《筆傭集》·《鞏湖集》·《北夢瑣言》과 농업서인 《蠶書》 등이 있다. 또한 《續通曆》을 편찬했는데, 紀事가 자못 참됨을 잃음이 많아 宋太宗 太平興國(976-979)초에 조칙을 내려 없애버렸다. 孫光憲은 평소 문학으로 자부했는데, 荊南에 處하여 뜻을 얻지 못함을 자못 불만족스러워 했다. 일찍이 ‘史氏之作’¹³⁾을 흠모하여, 자못 자신이 幕下에 있어 그 재주를 펼 수 없음을 한스러워 했다. 매번 知己들에게 말하길, “獲麟의 筆法¹⁴⁾이 도리어 전장에서 쓰일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라고 했다.

光憲은 또한 小詞를 잘 지었는데, 蜀人 趙崇祚가 《花間集》을 편찬할 때, 그의 사를 60여 수나 실었다. 그의 사집은 따로 남겨진 것이 없고, 대다수의 작품들이 《花間集》과 《尊前集》에 수록되어 오늘날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12) 葆光是 빛을 숨긴다는 의미로, 孫光憲이 이를 自號로 삼은 것은 재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살고자 하는 뜻을 기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13) 史氏는 史官이나 史家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孔子나 司馬遷을 지칭한다. 唐 韓愈의 <答劉秀才論史書>에 “史氏褒貶大法, 《春秋》已備之矣”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孔子를 가리킨다.

14) 孔子가 《春秋》를 지을 때, 「哀公十四年春, 西狩獲麟」의 句에서 擱筆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위에서의 ‘史氏之作’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3. 孫光憲詞의 예술 성취

주지하다시피, 溫庭筠이 화려한 필치로 艷詞를 지어낸 이래로, 만당·오대의 詞人들은 앞을 다투어 풍부한 서정과 婉約한 풍격으로 艷情을 표현하는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오대시절 《花間集》을 통해 일차로 결집되게 되는데, 우리는 ‘花間’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거기에 수록된 작품들의 성격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花間集》에 수록된 대다수의 작품들이 艷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濃艷하면서 함축적인 표현으로 객관적 묘사에 탁월했던 溫庭筠과 疏脫·清麗한 풍격으로 사랑의 감정을 주관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해내는 데 뛰어났던 韋莊은 소위 ‘花間詞’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후대에도 심원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花間集》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이, 반드시 溫·韋의 영향 아래 艷情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었다. 韋莊만 하더라도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菩薩蠻> (人人盡說江南好)에서 나그네로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정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었고¹⁵⁾, <菩薩蠻> (勸君今夜須沉醉)에서는 고통스럽고 짧은 인생에 대한 감개를 술로 달래려는 주인공을 형상화하였으며, <喜遷鶯> 2수에서는 시인 스스로 과거에 급제한 후 경험한 환희에 찬 정경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결코 艷情 일변도로 작품을 창작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화간사인이 등장하여 보다 다양한 제재와 내용의 작품을 창작하였고, 여타 화간사인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격과 경계를 개척하여 화간사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니, 그가 바로 孫光憲이다.

15) 韋莊은 <清平樂> (春愁南陌)과 같은 작품에서 고향을 그리는 애절한 정을 직접 드러내기도 하였다.

3.1 題材의 다양화

문학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작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제재를 연구하는 일은 그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孫光憲詞를 고찰함에도 이 말은 역시 유효하다. 특히 이미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孫光憲詞의 제재·내용의 폭에 주목했으므로, 孫光憲詞의 특징 혹은 성취를 살피려면 우선 그것의 제재·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孫光憲 역시 화간사인 가운데 한 사람이므로, 그의 사에도 염정적인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심지어 그의 작품 가운데에는 “취한 뒤 ‘예쁜 언니(기생을 가리킴)’라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밤이 되자 ‘멋진 오빠’를 머물게 하는데, 사랑이 오래 갈지 모른단 말인가?”¹⁷⁾와 같이 ‘쓰레기(垃圾)’라고 혹평을 당한 작품도 있다.¹⁸⁾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의 애정사에서 극히 일부에 속하고, 오히려 그는 화간사의 脂粉氣를 걷어낸 清麗하고 疏脫한 작품을 잘 지었다.

聽寒更,	추운 밤 물시계 소리 듣고 있자니
聞遠雁.	멀리서 기러기 우는 소리 들려오네.
半夜蕭娘深院.	한밤중 蕭娘의 깊은 뜰
扃繡戶,	수놓은 문은 닫혀 있고
下珠簾.	주렴은 드리워져 있는데
滿庭噴玉蟾.	뜰 가득히 달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네.

人語靜.	사람의 말소리 고요하고
香閨冷.	향기로운 閨房은 싸늘한데
紅幕半垂清影.	붉은 휘장 반쯤 청량한 그림자 드리웠네.
雲雨態,	사랑 느낀 자태로
蕙蘭心.	蕙蘭같은 마음 지녔으니

16) 柳種睦, 《蘇軾詞研究》, 大邱: 중문출판사, 1993, 90쪽 참조.

17) “醉後愛稱嬌姐姐, 夜來留得好哥哥, 不知情事久長麼?”(<浣溪沙> 其十四) 이 작품은 《尊前集》에 수록되어 있고 《花間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 許宗元, 《中國詞史》, 合肥: 黃山書社, 1990, 44쪽.

此情江海深. 그리는 이 마음 江海같이 깊어라. (<更漏子>)

사랑하는 님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규방을 지키는 여인을 제재로 한 작품으로, 맑고 깨끗한 필치가 돋보인다. 閨怨을 주제로 하면서도 격렬한 감정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 깊은 사랑의 감정을 깃들인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한편 孫光憲의 詞에는 ‘이별의 한’을 제재로 한 작품도 여러 수 보인다. 다음의 <酒泉子>를 보자.

曲檻小樓.	작은 누각의 굽은 난간
正是鶯花二月.	때는 찔꼬리 울고 꽃이 피는 이월이라네.
思無慘.	그리움으로 답답한 마음
愁欲絕.	근심은 이 내 가슴 끊어버릴 듯한데
鬱離襟.	이별의 심경은 울적하기만 하여라.

展屏空對瀟湘水.	병풍을 쳐서 부질없이 瀟水·湘水を 마주하니
眼前千萬里.	눈앞에 천만리가 펼쳐지는 듯.
淚淹紅.	눈물이 붉게 맺혀있고
眉斂翠.	찌그러진 눈썹엔 푸른빛이 엉겨 있는데
恨沈沈.	이 한은 정말로 깊고 깊도다.

이 작품에서는 이별의 슬픔에 젖어 있는 한 여인의 형상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규원을 읊거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들은, 비록 각 작가의 개성에 따라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화간사인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제재의 선택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비교적 흔한 제재라고 하여 그것의 예술적 감화력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데 孫光憲詞에는 위와 같이 閨怨 제재 이외에도, 여타 화간사인들에게 있어서는 보기 힘든 제재들을 다룬 작품들이 있어 우리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시킨다. 아래에서는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孫光憲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詠史懷古의 작품들이 몇 수 있다. 본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孫光憲은 생전에 박식하고 책을 좋아했으며, ‘史氏之作’을 추구하였고 《續通曆》을 편찬한 적이 있었다. 이는 그가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조예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의 사작품 가운데 전체 화간사를 통틀어도 얼마 되지 않는 詠史懷古의 작품이 몇 수 존재하는 것은 이것과 분명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련 작품을 한 수 보자.

太平天子,	태평한 천자
等閒遊戲,	쓸데없는 놀이나 하자고
疏河千里.	천리 물길을 뚫었네.
柳如絲,	실과 같은 버들가지
偎依,	기대어 선
淶波春水,	봄 강엔 맑은 물결 일렁이는데
長淮風不起.	긴 회수엔 바람도 일지 않네.

如花殿脚三千女,	꽃과 같은 삼천의 전각녀
爭雲雨,	천자와 운우지정을 나눌 것을 서로 다투니
何處留人住?	어디일까,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곳은?
錦帆風,	비단 돛에 바람이 불고
煙際紅,	자욱한 안개는 붉은 빛으로
燒空,	하늘을 불사르는데
魂迷大業中.	넋이 大業 연간에 떠돈다. (<河傳>)

이 작품은 隋나라 煬帝가 운하를 판 후 배를 타고 남하하며 유희를 즐기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지은 사이다. 당시 유희나 즐기고자 천리의 물길을 뚫은 황음무도한 군주와 그 군주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다투던 殿脚女(민간에서 징집되어 양제의 龍舟를 끌던 여자)들은 이미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고, 지난날의 풍류를 깡그리 불사르는 양, 안개 낀 뱃길 위의 석양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옛일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시인의 무한한 감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군주의 황음무도함에 대한 경계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위 작품의 곡조인 <何傳>은 수양제가 江都로 행차할 때 지은 악곡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孫光憲이 이를 염두에 두고 지은

本意詞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여타 詠史懷古류 작품들 역시 대부분 曲調의 이름과 관련된 제재를 읊고 있다. 예컨대 <後庭花> 2수는 모두 <玉樹後庭花>를 지은 南朝 陳後主와 관련된 작품이고, <思越人> 2수는 춘추전국시대 越나라 미녀 西施와 관련된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 속에서는 과거의 환락과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대한 묘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서둘러 오늘날의 적막함과 대비시킴으로써, 인생무상의 감개를 드러내거나 군주의 황음무도함이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풍자의 뜻을 기탁하고 있다. 이 밖에 <楊柳枝> (根柢雖然傍濁河)와 <楊柳枝> (萬株枯槁怨亡隋) 역시 調名에 따라 수양버들을 읊은 本意詞로, 詠物의 기저에 백성을 괴롭혀 운하를 파고 수양버들을 심어 유흥이나 즐기던 황음무도한 수양제에 대한 비판의 뜻을 기탁하고, 동시에 그런 망국의 역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환락에 빠져있는 세태를 꼬집고 있다.

둘째, 孫光憲의 작품 속에서는 邊塞를 읊은 작품이 여러 편 보인다. 이러한 邊塞 제재의 작품이 孫光憲의 詞에 보이는 것은 아마도 일생을 幕下에서 보낸 그의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空磧無邊,	가없이 넓은 텅 빈 사막
萬里陽關道路,	양관으로부터 만 리나 되는 곳.
馬蕭蕭,	말이 히히힃 쓸쓸히 울부짖는 가운데
人去去,	사람은 가고 또 가네.
隴雲愁	隴山の 구름은 근심스럽기만 하네.
香貂舊制戎衣窄,	담비 가죽 낡은 군복 작아지지는 않았을까?
胡霜千里白,	오랑캐 땅엔 서리가 천리 길 위에 하얗게 내렸을 텐데.
綺羅心,	아름다운 내 마음
魂夢隔,	꿈에서조차 님에게 다가갈 길이 막혀
上高樓,	높은 누대에 오르네. (<酒泉子>)

이 작품은 上片에서는 변방의 처량한 모습을 그려 만 리 길을 떠난 征夫의 근심을 노래하고 있고, 下片에서는 그런 님을 떠나보낸 여인의 염려와 그리움의 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邊塞之情과 규원이 어우러져 매우 깊은

서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帝子枕前秋夜,	공주의 잠자리 앞에 펼쳐진 가을밤
霜幄冷,	서리 머금은 장막은 서늘하기만 한데
月華明,	달빛은 한창 밝아
正三更.	바로三更이네.

何處戍樓寒笛,	어느 곳의 戍樓에서 들려오는 피리소린가?
夢殘聞一聲.	꿈결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네.
遙想漢關萬里,	저 멀리 만 리 밖의 고향땅을 생각하니
淚縱橫.	눈물이 마구 흘러내리네. (<定西番>)

이 작품은 和親을 위해 이민족에게 시집온 漢나라 공주가 塞外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읊은 사로서, 《花間集》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제재를 다루고 있다. 塞外 가을의 쓸쓸한 풍경을 배경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된 여인의 처량한 심경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이 밖에 <定西番> (鷄祿山前遊騎)도 변새를 읊은 사이다. 특히 이 사는 楊海明이 《唐宋詞史》에서 “색채가 선명하고 기상이 활달하여, 《花間集》 중의 명목은 ‘변새’이면서 내용은 ‘규원’인 기타 변종의 사들과는 다르다”고 평한 작품이다.¹⁹⁾ 한편 위에서 예로든 작품들 모두 調名에 따라 변새를 제재로 삼아 모두 本意詞에 속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²⁰⁾

셋째, 사대부 문인의 隱逸自適을 제재로 한 작품도 孫光憲詞 가운데 발견된다. 다음의 <漁歌子>를 보자.

草芊芊,	풀은 무성하고
波漾漾,	파도는 넘실넘실
湖邊草色連波漲.	호수가의 풀빛은 넘실대는 파도에 이어져 있네.
沿蓼岸,	여뀌 언덕을 따라 가며
泊楓汀,	단풍나무 물가에 정박을 하는데

19) 楊海明, 앞의 책, 190쪽. 이 작품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20) ‘定西番’은 서쪽 이민족 지역을 평정한다는 뜻이고, ‘酒泉子’의 ‘酒泉’은 오늘날 甘肅省 서북부에 속해 있는데, 과거에는 서북 이민족의 활동무대였다.

天際玉輪初上.	하늘가에 달이 막 올라온다.
扣絃歌,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聯極望,	멀리 사방을 바라보나니
槳聲伊軋知何向.	빠거덕 빠거덕 노 소리를 내며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黃鵠叫,	황색 고니가 울부짖고
白鷗眠,	흰 갈매기 잠을 자는데
誰似農家疏曠.	누가 나의 이 소탈하고 광달함과 비슷하리오?

대자연에 정을 기탁하여 소탈하고 담박한 심경을 표현해낸 작품이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中唐시기에 張志和는 <漁歌子> (일명 <漁父>) 5수를 지어 강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속세를 벗어난 은일자로서의 면모를 형상화한 적이 있다. 張志和의 작품은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켜 많은 이들이 여기에 화답을 하여 일시에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다. 여기서 張志和의 작품을 한 수 든다.

西塞山前白鷺飛,	서새산 앞에 백로가 날아가고
桃花流水鱖魚肥.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쏘가리는 살이 찰다.
青箬笠,	푸른 대삿갓을 쓰고
綠蓑衣,	녹색 도롱이를 입었으니
斜風細雨不須歸.	비껴 부는 바람 가랑비 속에서라도 돌아갈 필요가 없도다.

비록 短調에서 雙調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또 세부적인 묘사 대상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孫光憲詞는 張志和詞와 마찬가지로 은일자적의 주제의식을 맑고 소탈한 필치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湯顯祖는 “마침내 張志和, 張季鷹²¹⁾의 자리를 빼앗았으니, 너무 좀 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湯顯祖評本《花間集》卷4)²²⁾라고 다소 유머러스하면서 과장된 평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孫光憲에게는 또 한 수의 <漁歌子> (泛流螢)가

21) 가을 바람이 일자 고향 오중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내던지고 돌아간 서진의 張翰을 가리킨다.

22) “竟奪了張志和、張季鷹坐位，忒覺狠些。”(張璋 등, 앞의 책, 830쪽에서 인용)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은일을 제재로 다루고 있다.

넷째, 농촌의 모습이나 남방의 생활상과 풍속도 孫光憲은 사로써 읊어냈다. 일단 다음의 <風流子>를 보자.

茅舍槿籬溪曲.	시냇물 굽어진 곳에 무궁화 울타리 두른 초가집
鷄犬自南自北.	닭과 개는 남으로 북으로 분주하네.
菰葉長,	줄잎은 길고
水篔開,	수초는 피었는데
門外春波漲滌.	문밖의 봄물이 불어서 맑네.
聽織,	베 짜는 소리 들으니
聲促.	그 소리가 촉급한데
軋軋鳴梭穿屋.	찰각 찰각 베틀의 북 소리가 집을 뚫고 나오네.

이것은 무궁화 울타리의 초가집, 닭과 개, 그리고 베 짜는 소리 등 농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李冰若은 《栩莊漫記》에서 이사를 두고, “《花間集》 중에 문득 이와 같이 담박하고 질박하게 田家의 耕織을 읊은 사가 있으니, 진실로 이채롭다 하겠다. 대개 詞境이 이 정도에 이르면, 이미 많이 확대된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물론 농촌의 풍경에 대한 단순한 묘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어서, 北宋 蘇軾이 <浣溪沙>를 통해 농민을 등장시켜 농촌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²⁴⁾, 艷詞의 틈바구니 속에서 농촌의 소박한 정경을 잘 묘사한 문인 농촌사의 선구로 보기엔 전혀 손색이 없다. 孫光憲이 이렇게 농촌의 모습을 詞로 그리게 된 것은, 그가 농촌 출신이고, 또 농업에 관심이 많아 《蠶書》를 쓴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다음의 작품에서는 남방의 풍속을 담아내고 있다.

門前春水(竹枝)白蘋花(女兒),	문 앞의 봄 물결엔 흰 개구리밥 꽃
岸上無人(竹枝)小艇斜(女兒).	인적 없는 언덕엔 작은 배 비스듬히 기대어 있네.

23) “花間集中忽有此淡樸詠田家耕織之詞，誠爲異彩，蓋詞境至此，已擴放多矣。”(張璋 등, 앞의 책, 819쪽에서 인용)

24) 柳種睦, 앞의 책, 159쪽.

商女經過(竹枝)江欲暮(女兒), 歌女가 지날 무렵 강이 저물려 하는데
散抛殘食(竹枝)飼神鴉(女兒). 남은 음식 흘뿌려 까마귀를 먹이네. (<竹枝>)

이 작품은 그윽한 정취 속에 남방 특유의 풍속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밖에 <八拍蠻> (孔雀尾拖金線長)과 <菩薩蠻> (木棉花映叢祠小)도 남방의 순박한 생활상과 풍속을 담아내고 있다.

이상의 제재 이외에도, <浣溪沙> (落絮飛花滿帝城)와 같이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늙기 전에 큰 뜻을 이루려는 포부를 밝힌 작품이 있고, 또 調名에 따라 사물을 읊은 영물사로서 버드나무를 읊은 <楊柳枝> 4首와 나비를 읊은 <玉胡蝶> (春欲盡)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도 孫光憲詞의 제재의 폭을 충분히 실감하게 해 준다.

요컨대 孫光憲詞의 제재의 폭은 다른 화간사에 비해서 넓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염정 제재의 작품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기는 하였지만, 옛일을 빌어 감개를 드러낸 것, 변세의 풍광을 그리거나 변세의 정을 읊은 것, 사대부 문인의 은일자적을 노래한 것, 농촌의 모습이나 남방의 풍속을 다룬 것 등은, 艷科의 좁은 울타리를 어느 정도 벗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孫光憲이 다른 화간사인들과 비교해서 제재 방면에서 이와 같은 성취를 거둔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後唐·荊南·宋의 세 왕조에 출사하였던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박식하고 책을 좋아하여 간접적인 경험 역시 풍부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孫光憲詞의 제재 다양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3.2 詞風의 확대

어떠한 문학 장르를 막론하고 작품의 風格을 연구하는 것은 해당 작가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사문학은 만당·오대에 이르러 염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완약한 방향으로 총체 풍격이 확립되어 갔으므로,

만약 어느 작가가 그러한 총체적 풍격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사문학사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의 풍격을 婉約과 豪放 두 가지로 나눈다면, 孫光憲詞의 풍격은 당시의 다른 화간사와 마찬가지로 완약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그의 사의 제재 내용에 있어서 염정적인 것이 주류를 이룬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선 다음의 <浣溪沙>를 한 수 보자.

攬鏡無言淚欲流, 말없이 거울을 손에 쥐니 눈물이 흐르려 하고
凝情半日懶梳頭. 한나절 정에 빠져 머리 빗는 것조차 귀찮은데
一庭疏雨濕春愁. 온 뜰 가득 성근 비가 봄날의 근심을 적시네.

楊柳祇知傷怨別, 수양버들만이 내가 원망스런 이별에 상심함을 알고
杏花應信損嬌羞, 살구꽃은 틀림없이 내 어여쁨이 손상되었음을 믿을지니
淚沾魂斷軫離憂.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뉘는 끊겼는데
이별의 슬픔에 가슴이 아프네.

이별의 슬픔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특히 제3구는 黃昇이 “古今의 佳句”²⁵⁾라고 칭송한 이래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蕭繼宗의 지적처럼 “淚沾魂斷軫離憂”은 다소 피상적인 느낌을 주고, 또한 ‘愁’·‘傷’·‘怨’·‘軫’·‘憂’ 등의 비슷한 뜻을 가진 글자를 나란히 쓰고 있으며, ‘淚’자 역시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노출한 감이 없지 않다.²⁶⁾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이 사의 완약함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염정적 제재의 작품을 제외할지라도, 孫光憲詞의 풍격은 여전히 완약함이 대세를 이룬다. 우선 앞에서 염정 이외의 제재를 읊은 것의 예로 든 작품들 가운데 소위 호방한 풍격을 갖춘 작품은 고작 <漁歌子> (草芊芊) 1수밖에 없다. 변새사의 예로 든 <酒泉子> (空磧無邊)나 <定西番> (帝子枕前秋夜)의 풍격 역시 완약하고, 農村詞 <風流子>나 詠史懷古의 작품들 역시 호방함과는

25) 본고 아래 주 33)을 참고하기 바람.

26) 蕭繼宗, 앞의 책, 389쪽.

거리가 있다.

그러나 孫光憲에게는 위의 <漁歌子> (草芊芊)를 제외하고도 호방한 풍격의 작품이 좀 더 있다. 우선 다음의 변새사 <定西番>을 보자.

鷄祿山前游騎,	계록산 앞으로 말을 몰고 가보니
邊草白,	변새의 풀들은 서리 맞아 희고
朔天明,	북녘 하늘은 밝아 오는데
馬蹄輕.	말발굽 소리는 경쾌하다.

鵠面弓離短鞬,	까치 얼굴 활을 짧은 활통에서 꺼내어
彎來月欲成.	활을 당기니 둥근 달이 될 듯하구나.
一隻鳴鶻雲外,	화살 한 축 소리 내며 구름 밖으로 날아가니
曉鴻驚.	새벽 기러기가 놀란다.

변방의 활달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활을 쏘는 광경이 후대 蘇軾의 호방사 가운데 하나인 <江城子> (老夫聊發少年狂)의 “會挽雕弓如滿月, 西北望, 射天狼”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 사의 풍격에 대해 ‘호방’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데에는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詞人 스스로 “疏曠”²⁷⁾을 자부하면서 소탈하면서도 호방한 면모를 보여준 <漁歌子> (草芊芊)의 바로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자.

泛流螢,	떠다니는 반딧불이
明又滅,	깜박깜박 빛을 내는데
夜涼水冷東灣闊.	싸늘한 밤 물은 차고 동쪽 굽이는 광활하여라.
風浩浩,	바람이 세차게 불고
笛寥寥,	피리소리 쓸쓸한데
萬頃金波澄澈.	만경의 금빛 파도가 맑고 또 맑도다.

杜若洲,	杜若 핀 모래섬에
香郁烈.	향기가 솟아나는데

27) “疏曠”의 사전적 의미가 바로 ‘호방’·‘활달’이다.(《漢語大辭典》)

一聲宿雁霜時節.	서리 내리는 시절 들리는 외로운 기러기의 소리.
經雪水,	雪水を 지나
過松江,	송강을 건너나니
盡屬農家日月.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속하네.

대자연에 자신을 기탁하여 만물과 하나가 되어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 역시 <漁歌子> (草芊芊)와 마찬가지로 명랑하고 활달한 기세가 돋보이는 호방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孫光憲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호방한 풍격의 사를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성급하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완약사가 압도하던 시대에 후대 호방사의 본격적인 출발과 발전을 위하여 앞길을 열었다는 측면은 충분히 긍정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호방한 작품 이외의 孫光憲詞에는 다른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것일까? 화간과 사인들의 풍격을 완약이라는 용어로 개괄하기는 하지만, 사실 대표인물인 溫庭筠과 韋莊만 하더라도 풍격에 있어서는 서로 사뭇 다르다. 다시 말해, 溫·韋 두 사람 모두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를 쓴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溫詞가 뻑뻑하고 아름답다면 韋詞는 맑고 소탈하다. 이처럼 사에 있어서의 완약함은 다시 濃密함과 清麗함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이들은 화간사인들을 사풍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溫庭筠 일파’ 혹은 ‘韋莊 일파’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때 孫光憲詞는 韋莊 일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²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위험과 모순이 따르기는 하지만²⁹⁾, 어느 정도까지는 近理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孫光憲에게는 溫詞의 濃艷한 脂粉氣보다는 韋詞의 맑고 소탈한 풍격에 가까운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28) 대표적인 예로는 李冰若在 《栩莊漫記》에서 “葆光子詞婉約清麗處, 神似韋莊”이라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蕭繼宗, 앞의 책, 385쪽에서 인용) 이 밖에 許宗元도 韋莊詞의 영향을 다루면서, 花間派 가운데 薛昭蘊·李珣·孫光憲 등의 詞風이 韋莊과 서로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29) 孫光憲詞 가운데에는 《菩薩蠻》(花冠頻鼓墻頭翼)처럼 ‘香艷穠縹’하여 溫庭筠의 작품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成松柳·嚴可, <試論孫光憲詞的藝術特色>, 《湖南文理學院學報》, 2006년 9월, 82쪽 참조).

른 화간사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도발적인 도입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³⁰⁾ 그런데 이 작품은 제2구에서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첫 구만 보고서 ‘붙잡을 수 없다면 틀림없이 무엇인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지’라고 예상한 독자들이라면 더욱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작중 화자는 그런 일반의 예상을 깨고 “붙잡아 봤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떠나는 이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는 기색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갑자기 일어나고 다시 급하게 전환하면서, 솔직담백하면서도 힘차게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孫光憲詞가 기골이 강건하고 굳세다는 것의 한 측면으로서, 이와 같은 특징을 溫庭筠과 韋莊의 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³¹⁾ 3구부터는 여인을 버린 사내가 떠나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첫 두 구를 부연하며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그 사내의 박정함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별을 원망하는 한편 그 사내에 대한 애정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금슬 좋은 원앙의 무리에 대비되는 ‘외로운 난새’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이별의 비애와 사랑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표현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뿜은 첫 두 구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굳센 기골을 바탕으로 하고, 매우 치밀하면서도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 낸 작품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화간사의 풍격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孫詞의 意境이 다른 화간사에 비해 광활하다는 것 역시 그것의 기골이 굳세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다시 말해, 다른 화간사인들이 단지 완약하거나 華靡한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화간’의 좁은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둔 것과는 달리, 孫光憲은 굳센 기골을 바탕으로 자신의 드넓은 기개를 종종 詞作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이 詞境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앞에서 예로 든 작품들 가운데 “空磧無邊, 萬里陽關道路”(〈酒泉子〉), “遙想漢關萬里, 淚縱橫”(〈定西番〉)과 같은 표현에서, 우리는 ‘閨閣庭院’

30) 孫詞에서 이와 비슷한 도입을 한 경우로는 <思帝鄉> (如何)에서 “如何, 遣情情更多”라고 한 것과, <清平樂> (愁腸欲斷)에서 “愁腸欲斷, 正是青春半”이라고 한 것을 다시 들 수 있겠다.

31) 詹安泰, 앞의 책, 185쪽 참조.

과 같은 좁은 공간의 울타리를 벗어난 孫詞의 광활한 의경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할 작품 역시 孫詞의 넓은 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蓼岸風多橘柚香,	여뀌 언덕 바람 불어 굴과 유자 향기롭고
江邊一望楚天長.	강가에서 바라보니 초나라 하늘 길게 펼쳐져 있는데
片帆煙際閃孤光.	안개 속의 조각배가 외로운 빛을 반짝인다.
目送征鴻飛杳杳,	길 떠나는 기러기 아득히 날아가는 장면을 눈으로 전송하니
思隨流水去茫茫,	그리움은 물결 따라 끝없이 흘러가는데
蘭紅波碧憶瀟湘.	난초 꽃 붉고 물결 맑은 시절의 瀟水·湘水를 회상하리.

(<浣溪沙>)

이 사는 送別의 정을 노래한 것으로, 上片의 寫景과 下片의 抒情이 어우러져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추억을 짧은 6구 가운데 생동감 있게 표현해낸 빼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제3구인 “片帆煙際閃孤光”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명구로서, 일찍이 陳廷焯은 이 구절이 古今の 詞人들을 압도한다고 칭송하였고³²⁾, 王國維도 黃昇이 ‘古今の 佳句’라고 말한 <浣溪沙> (攬鏡無言淚欲流)의 “一庭疏雨濕春愁”가 경계가 훨씬 드높은 이 구절보다는 못하다고 하며 칭찬을 마지않았다.³³⁾ 드넓게 펼쳐진 강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물안개와 강물이 맞닿는 지점에 외로운 불빛이 하나 반짝인다. 이것은 바로 작중 화자가 떠나보낸 님이 타고 있는 작은 돛단배. 작중 화자는 여뀌 꽃이 가득 핀 언덕에 올라 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자리를 떠날 줄을 모른다. 이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구절로서, 단 7자 가운데 광활한 경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속에 깊은 서정까지 깃들게 하였으니, 前人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데에는

32) 《白雨齋詞評》：“片帆’七字，壓遍古今詞人。”又云：“閃孤光’三字警絕，無一字不爲鍊，絕唱也。”張璋 등, 앞의 책, 790쪽에서 인용)

33) 《人間詞話》附錄：“昔黃玉林賞其‘一庭疏雨濕春愁’爲古今佳句，余以爲不若‘片帆煙際閃孤光’，尤有境界也。”(王國維, 《人間詞話》(蓬萊閣叢書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72쪽)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 구절 이외에도 앞 구절인 “江邊一望楚天長”이나 下片의 1·2 구절인 “目送征鴻飛杳杳”와 “思隨流水去茫茫”도 모두 독자의 시야를 끝없이 넓혀주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 역시 이 사 전체의 광활한 경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학자 青山宏은 《唐宋詞研究》에서, 孫光憲의 詞가 濫詞·韋詞와 사풍에 있어서 다른 점 가운데, 위와 같이 광활한 시야를 나타내는 詞句를 대량으로 운용한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으로 들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요원하고 광활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구가 濫詞의 경우는 孫詞의 1/2 정도이고, 韋詞의 경우는 孫詞의 1/4 정도이므로, 濫·韋 두 사람 모두 이 방면에 있어서는 孫光憲에 비할 수 없다고 青山宏은 설명하고 있다.³⁴⁾

요컨대 孫光憲의 사풍은 제재·내용의 영향으로 완약한 것이 주종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에는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호방한 풍격의 작품이 이미 들어 있고, 완약한 풍격이라고 할지라도 孫詞 특유의 기골이 강건하고 굳센 측면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완약과 호방을 막론하고 孫光憲詞는 화간의 그 어떤 詞人의 작품들보다도 광활한 의경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결국 孫光憲이 화간사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풍을 확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 절에서 그가 화간사 제재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성취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結語: 孫光憲詞의 한계와 의의

지금까지 필자는 孫光憲이 염정적인 화간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떠한 성취를 거두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 孫光憲詞가 제재나 풍격 두 방면에서 모두 여타 화간사인들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보이고

34) 青山宏著, 鄭郁綴譯, 《唐宋詞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66-67쪽.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화간사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孫光憲이 이룩한 성취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孫光憲詞의 성취를 확인한 시점에서, 본고의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즉 孫光憲詞가 비교적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까닭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孫光憲이 제재나 사풍에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孫詞의 성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詞가 문인의 장르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당·오대에 있어서, 唐 중엽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악곡(燕樂)의 ‘가사’라는 사의 숙명적인 정체성은, 填詞를 하는 문인들로 하여금 이미 음악으로부터 유리된 詩를 짓던 때와는 다른 방식과 경향으로 사를 짓도록 여전히 강력하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만당·오대의 사가 총체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완약한 풍격으로 노래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문인들의 문화가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흐른 탓도 있겠지만, 서정성이 매우 강한 燕樂이라는 새로운 음악의 가사로 그것이 지어진 것과는 분명 관련이 깊다고 본다. 어쨌든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운문장르였지만 詞와 詩는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 또한 작가에게 요구하는 바도 달랐다.³⁵⁾ 특히 만당·오대와 같이 詞가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孫光憲은 다른 사인들에 비해 사의 제재나 의경의 폭을 확대하여 이른바 ‘詩性’을 詞의 영역으로 얼마간 끌어들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 당시 詞壇의 조류나 사 본연의 면모에서 벗어난 ‘別調’ 중의 ‘別調’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미감을 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當行本色’과는 거리가 있어 溫庭筠·韋莊과 같은 전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다. 이와

35) 이와 관련하여 王國維는 《人間詞話》 未刊手稿에서 “詞之爲體，要眇宜修。能言詩之所不能言，而不能盡言詩之所能言。詩之境闊，詞之言長”이라고 말한 바 있다.(王國維, 앞의 책, 19쪽)

관련하여 陳廷焯의 말을 들어 본다.

孫孟文의 詞는 기골이 심히 굳세고, 단어를 골라 쓴 것 역시 놀랄만하거나 정제된 표현이 많다. 그러나 溫庭筠과 韋莊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점 역시 여기에 있으니 閑雅하고 부드러운 정취가 부족했기 때문이다.³⁶⁾

이는 물론 陳廷焯이 전통적 관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孫光憲의 ‘氣骨甚邁’한 측면을 일면 긍정하면서도 결국엔 ‘閑婉之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溫·韋보다 낮게 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³⁷⁾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는 또한 화간사에 孫光憲과 같은 ‘別調’가 있는 것에 대하여 긴 세월이 흐른 청대까지도 얼마간의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孫光憲의 시도는 북송시기 蘇軾의 ‘以詩爲詞’에 의해 제대로 된 결실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사와 악곡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완되었고, 또 蘇軾 스스로가 孫光憲과는 달리 보다 의도적으로 시적인 표현과 기교를 사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이 못사람들의 이목을 일신시켰기 때문에, 비록 ‘本色’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³⁸⁾ 蘇軾詞는 中國詞史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蘇軾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詞의 체질을 詩적인 방향으로 바꾸었다면, 孫光憲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여기에 孫光憲詞의 두 번째 한계가 존재한다. 본론에서 孫詞의 성취로 다룬 것들은 대체로 전체 孫詞의 부분들에 해당한다. 즉 孫光憲 역시 기본적으로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 엄정적 제재를 완약한 풍격에 담아 사를 창작한 ‘화간사인’이었고, 그 바탕 위에서 이런 저런 유의미한 시도들을 했던 것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론에서 고찰한 孫詞의 성취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그 범위가 매우

36) “孫孟文詞，氣骨甚邁，措語亦多警鍊。然不及溫、韋處亦在此，坐少閑婉之致。”(陳廷焯著，杜維沫校點，《白雨齋詞話》，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5，8쪽)

37) 詹安泰，앞의 책，186쪽.

38) 陳師道《後山詩話》：“退之以文爲詩，子瞻以詩爲詞，如教坊雷大使之舞，雖極天下之工，要非本色。”(〔清〕何文煥輯，《歷代詩話》，北京：中華書局，2004，309쪽)

제한적이거나 그 특징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확대된 제재를 읊은 작품에서도 대체로 여인이 중요한 각색으로 등장하고 있고, 개중에는 <何傳> (太平天子)과 같이 염정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호방한 풍격을 구현한 작품들 가운데에도 완약의 기운이 스며들기도 하여, <漁歌子> (草芊芊)의 “沿蓼岸, 泊楓汀, 天際玉輪初上”과 <漁歌子> (泛流螢)의 “杜若洲, 香郁烈, 一聲宿雁霜時節” 등의 구절에서는 완약의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孫光憲이 거둔 성취는 다분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후대인들이 하나의 전범으로 받들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서 溫庭筠과 韋莊의 사는 예술적 성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격에 있어서 매우 뚜렷하고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기 때문에 후세인들이 전범으로 받들기에 적합하였다. 다음의 글을 보자.

飛卿(溫)은 사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깃들이고 端己는 직접적으로 흥금을 털어 놓았다. 飛卿의 사는 幽深하고 美麗하며, 端己의 사는 清雅하고 俊逸하다. 후세의 이른바 婉約派는 대체로 溫氏에게서 나왔고 豪放派는 대체로 韋氏에게서 나왔다.³⁹⁾

이 글은 만당·오대의 사인들 중 문학사적 의의가 가장 큰 두 사람, 즉 溫庭筠과 韋莊의 사가 이후의 사에 끼친 영향을 논한 것이다. 이 중 흥금을 직서한 韋莊의 사풍에서 호방사의 기원을 찾은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孫光憲에 의해 이미 호방한 풍격의 작품이 창작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닌 韋莊에게서 호방과의 기원을 찾은 것은, 이 글을 쓴 이의 견문이 부족해서 孫光憲詞의 성취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孫光憲詞가 韋莊詞처럼 하나의 전범으로서 후대 사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⁴⁰⁾

39) 鄭騫, <溫庭筠·韋莊與詞的創始>. (柳種睦, 앞의 책, 204쪽에서 인용)

40) 최근 나온 孫光憲詞 관련 논문들에서는 孫光憲詞가 후대 사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영향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필자가 과문한 탓이었지만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孫光憲詞가 문학사적으로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어도 孫光憲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花間의 동산은 더욱 넓고 다채로워질 수 있었다. 아울러 《尊前集》에 수록된 그의 명구 “봄의 병과 봄의 슬픔, 어찌하여 해마다 있는가? 반은 베개 앞의 사람 때문이고, 반은 꽃 사이의 술 때문이라네)(〈生查子〉)”⁴¹⁾는 楊海明의 지적처럼 南唐詞에서 자주 보이는 ‘憂患意識’이 깃들여 있는데⁴²⁾,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그의 사를 통해서 우리는 花間詞와 南唐詞를 잇는 중요한 교량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³⁾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조명할 길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노력들이 蘇軾을 비롯한 北宋의 여러 諸賢들에게 이어져 마침내 성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文人詞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서 행해진 그의 여러 시도들은 문학사의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들이 충분히 중시할 가치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參考文獻 >

- [清]陳廷焯 著, 杜維沫 校點, 《白雨齋詞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清]何文煥 輯, 《歷代詩話》, 北京: 中華書局, 2004.
 蕭繼宗 評點校注, 《花間集》,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1.
 張璋·黃畬 編, 《全唐五代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鄭振鐸, 《插圖本中國文學史》, 北京: 北京出版社, 1999.
 柳種睦, 《蘇軾詞研究》, 大邱: 중문출판사, 1993.
 楊海明 著, 宋龍準·柳種睦 共譯, 《唐宋詞史》, 서울: 新雅社, 1995.
 詹安泰, 《宋詞散論》,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82.
 許宗元, 《中國詞史》, 合肥: 黃山書社, 1990.

41) “春病與春愁, 何事年年有? 半爲枕前人, 半爲花間酒.”

42) 楊海明, 앞의 책, 191-192쪽.

43) 이와 관련하여 吳熊和는 《唐宋史通論》에서 “他仕于南平, 地處西蜀下游, 南唐上游. 他的詞風, 也正好介于西蜀詞與南唐詞之間”이라고 말한 바 있다(吳熊和, 《唐宋詞通論》, 北京: 商務印書館, 2003, 179쪽).

- 青山宏 著，鄭郁綴 譯，〈唐宋詞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5.
- 王國維，〈人間詞話〉(蓬萊閣叢書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
- 申鉉錫，〈孫光憲詞의 特徵 考〉，〈中國人文科學〉 36호，2007.
- 張美麗，〈氣骨遒勁 - 論五代詞人孫光憲詞的審美風格〉，〈大連大學學報〉，2005. 6.
- 張帆，〈論孫光憲對花間詞題材的開拓〉，〈涪陵師範學院學報〉，2005. 9.
- 宋純，〈別調中的別調：對“孫詞近韋”現象的反思〉，〈重慶教育學院學報〉，2006. 3.
- 成松柳·嚴可，〈試論孫光憲詞的藝術特色〉，〈湖南文理學院學報〉，2006. 9.
- 吳丹，〈別樣的花間詞人孫光憲〉，〈凱里學院學報〉，2007, 10.

< 中文提要 >

孫光憲是花間派的一位重要詞人。《花間集》收其詞61首；《尊前集》另收23首，共有84首傳世。此數量在花間詞人中居第一位；在整個五代詞人中列馮延巳後居第二位。而詞學界對其作品的重視及研究，與溫庭筠、韋莊相比，却遠遠不夠。近代以來，有些學者爲了孫詞在詞史上地位的提高，做出了努力，其中有些人認爲孫詞堪與溫、韋鼎足而立。但是，這種看法尚未獲得詞學界的公認。以往的研究大都對孫詞在花間詞題材方面的開拓以及其獨特的藝術風格的體現，給予了充分的重視。因此，本文筆者也從這兩個方面着手，重新考察孫詞的藝術成就，並對孫詞的界限也進行討論，以期分析孫詞的歷史地位總不如溫、韋的原因所在。

關鍵詞：孫光憲，題材，詠史懷古，邊塞詞，隱逸詞，農村詞，詞風，氣骨遒勁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3.31	2011.4.28	2011.5.16	2011.5.20	2011.5.31